

장흥군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노벨 문학도시 조성 박차”

10개 읍·면 순회 주민 3000명 참석 건의사항 200여건 접수 도로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 정부·전남도와 긴밀 협력 추진

장흥군이 노벨 문학도시 실현을 위한 군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민생경제 등 군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군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치면에서 시작한 군민과의 대화가 10개 읍·면에서 차례대로 열려 장흥읍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대화에 총 3000여명이 참석하고, 건의사항 200여건을 접수했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건의사항 서면 접수 방식을 도입해 현장의 작은 의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군민과의 대화는 2024년 군정 성과 공유와 2025년 군정 비전 발표, 건의사항 및 생활 불편사항 질의 답변, 농어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 군수는 10개 읍·면 모두에서 ▲2024년 국·도비 및 공모사업비 2303억원 확보 ▲수출액 103% 대폭 상승 ▲바이오산단 분양률 70% 돌파 ▲인구 감소율 1%대로 둔화 등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군정 비전으로 ▲노벨 문학도시 실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맞춤형 인구전략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 실현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노벨 문학도시 장흥의 융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 30% 달성·권역별 전략작물 단지화·시설재배 100ha 이상 확대 등 장흥형 농업정책 추진 ▲농·특산물 수출액 500억원 달성 ▲공공배달업 활성화 등 소상공인



김성 장흥군수가 2025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 주요 성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육성 ▲장흥상품권 240억원 발행 및 가맹점 80% 달성 ▲스포츠키링 활성화 ▲민자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지역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대덕 신리-장흥 순지 4차로 확장사업(24.8km·4274

억원) 및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4차로 확장사업(8.6km·670억원)의 정부 예산 통과 ▲장평 봉림-장동 배산 4차로 확장사업(9.5km·950억원)의 설계 착수를 위해 정부 및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서면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책임 있는 마을 조성, 표고버섯 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 침수 위험지역 정비, 하천 및 농업기반 시설 정비 등 총 200여건에 이른다.

군은 이들 건의사항에 대해 각각 처리계획을 수립해 건의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저와 공직자들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융성시대를 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국도 24호선 개량사업 순항...국비 627억원 확보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장성군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국도 24호선의 개량사업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장성을 단거리에서 진입면 상리리 구간에 이르는 국도 24호선 5km 도로의 경사가 높고 굴곡져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

년 7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6차 국·국지도 건설계획 대상지'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로 지난 1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는 일일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해당 국도를 선정했다.

향후 국비 627억원이 투입돼 해당 구간 도로 폭을 넓혀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이동 편의성을 도모한다.

장성군은 지난 19일에도 전남지역 16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현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제창하며 SOC확대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 숙원사업인 국도 24호선 개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뜻깊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첨단3지구와의 원활한 연결로 지역경제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대중 교통비 환급 'K-패스' 사용 장려

월 60회, 최대 53%까지 절감

화순군이 군이 시행 중인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군민들이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순군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제고를 위해 대중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K-패스를 이용하면 ▲일반인(35세 이상)은 20% ▲청년층(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총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녀 부모로 분류된다. 자녀가 2명인 자녀녀 부모는 30%, 3명 이상이면 50%의 환급 비율을 적용받는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B국민은행, 농협 등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이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K-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모든 군민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선학동마을 일몰 풍경.

장흥 선학동마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올랐다

5월 최종 신청서 제출...12월 발표

장흥 선학동마을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4회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지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프로그램 대상지 선정과 함께 '제5회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 관광청(UN Tourism, 구 유엔세계관광기구)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화순군에 이어 장흥군이 3번째로 '최우수 관광마을'에 도전했다. 그 결과 국내 후보 중 유일하게 장흥 선학동마을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 마을로 선정됐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마을은,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마을을 말한다. 개별 멘토링, 최우수 관광마을 재도전 시 신청 절차 간소화, 최우수 관광마을 홈페이지 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지 페이지에 등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선학동마을이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학동마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도전에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군은 3월 초 현장 답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5월 유엔관광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학동마을이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된다면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2024년에 이어 재도전하는 만큼 총력을 다해 선학동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농업인 소득 증대' 온라인 마케팅 교육

체험·치유농업인 25명 참여

함평군은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와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21일 4회에 걸쳐 진행된 '2025년 매출을 올리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관리자 교육'은 온

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기법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진수 마케팅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보화농업인연합회와 체험 및 치유농업인 연구회 회원 중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효과적인 매출 증대 전략 ▲스마트

스토어 운영 관리 ▲온라인 판매 환경의 변화 ▲소비자 트렌드 분석 ▲마케팅 기법 등 심층적인 온라인 마케팅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역 농업인분들의 온라인 판매 능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담양군, 통근형 농업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

담양군이 귀농 창업의 플랫폼 역할수행 및 담양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까지 농업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49세 이하로 영농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지역과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1년 차에는 농업 기초이론, 농촌생활, 현장견학 등으로, 2년 차에는 주요 작물인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등 재배 기술 및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5월 8일 개강해 10월 30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1회당 3시간씩 총 60시간이다.

농업사관학교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농업체험실습센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근형으로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농업체험실습센터에서 체류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업사관학교를 통해 미래 담양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이 꾸준히 양성되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담양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제1기 농업사관학교를 운영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운수종사자(택시·전세버스) 생활안정자금 전달식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택시·전세버스 종사자 20만원씩 지원

190억원 민생경제 종합대책 포함

나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해당 종사자들은 연료비 상승과 민생경제 침체 여파로 이용 승객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청사에서 윤병태 시장이 지역 택시 연합회·지부, 전세버스 회사 대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나주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으로 이뤄졌다.

전세버스 156명, 개인택시 154명, 법인택시 99명 등 총 409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8190만원

을 일괄 지급했다.

나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19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입은 배과수 재배 농가에도 17억원을 투입해 1ha당 100만원씩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했다.

소비 부진에 큰 영향을 받는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한 곳당 30만원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 요금을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취지를 마음에 새겨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친절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